

이스타항공 신입 직원 153명 선발

객실인턴 40% 전복 출신

승무원 75명 중 30여명
일반직 78명 중 12% 차지



이스타항공은 3월 2016년 일반직과 객실인턴승무원을 포함한 신입 직원 채용을 마무리했다.

이스타항공은 3월 2016년 일반직과 객실인턴승무원을 포함한 신입 직원 채용을 마무리했다.

지난 2008년 이스타항공 창립 이후 가장 큰 채용 규모이며 객실 승무원 75명과 일반직 78명 등 총 153명의 신입 직원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채용에는 전북지역 할당을 통해 전복 출신을 대거로 채용해 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섰다.

총 75명을 선발한 2016년 상반기 객실인턴승무원 채용에는 40%에 해당하는 30여명을 전복출신으로 채용했으며, 경영, 인사, 재무, 영업, 정비, 운송, 운항 등 일반직 전 부문에서 진행된 공개 채용에도 총 78명의 합격자 중 12%를 전복 출신 인재들로 채용했다.

이스타항공은 객실승무원 채용에 따른 전북지역 출신 응시자 편의를 위해 지난 2월 1,2차 면접을 전주에서 시행하기도 했다.

이번 객실인턴승무원들과 일반직 입사자들은 3월 초 입사하게 된다.

객실승무원은 9주간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을 받게 되며, 일반직은 각 업무에 따른 부문별 교육 후 실무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2016년 상반기 항공기 도입 및 노선확대 계획에 따라 객실승무원과 일반직군의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으며, 향후 노선 운영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채용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김정식 대표는 "이번에 입사하게 되는 젊은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곧 이스타항공을 움직이는 힘이라 생각한다"며 "전복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은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온라인쇼핑 2개월 연속 5조원대

전체 소비의 17%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두 달 연속으로 5조원대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 쇼핑 비중은 17%까지 높아졌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월(3조5407억원) 대비 21.0%나 증가했다. 시무·문구(-2.2%)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판매가 늘었다. 특히 농축수산물(+57.0%), 아동·유아용품(+43.2%), 생활·자동차용품(+33.0%), 애완동물(+32.0%), 가방(+29.8%), 가구(+29.1%) 등의 거래 증가폭이 컸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2월(5조3609억원)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뒤 2개월 연속으로 5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올해 1월 전체 소매판매액(30조2372억원)은 전년 동월(30조

3089억원)에 비해 2.4% 감소했지만 온라인쇼핑은 20% 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매판매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월 11.7%, 2015년 1월 14.8%, 2016년 1월 17.2%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쇼핑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모바일 쇼핑 시장의 급성장 때문이다. 1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1조7645억원) 대비 51.1% 증가한 2조665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월 25.7%에서 2015년 41.0%, 2016년 51.1%로 상승했다. 의복(58.2%), 신발(60.3%), 가방(58.4%), 패션용품·액세서리(58.3%), 화장품(61.2%), 아동·유아용품(65.3%), 등은 모바일 쇼핑 비중이 60% 인팍으로 높았다. /이성주 기자

"한중FTA, 수출 감소세 반전시킬 호기"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최근 주춤하고 있는 중국 수출을 반전시키기 위한 호기로써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관에서 대(對)중국 수출이 많은 기업 대표 8명 및 전문가, 유관 부처 담당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對)중국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대중 수출이 줄었고 올해에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2%나 줄어 14개월째 감소하는 등 올해도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중 수출 규모는 2013년 1450억달러, 2014년 1433억달러, 2015년 1371억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도를 높여 중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장품, 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 산업을 육성해 대중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

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올해에는 5000개로 크게 확대해 수출 경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 인프라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504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2000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황 총리는 "정부는 한·중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에는 무역협회에 차이나네스 크를 설치해 중국 시장 정보와 원산지 증명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코트라를 중국 내 4개 대도시(베이징·상하이·칭다오·청두)에 FTA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지 시장조사와 통관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 내 무역 관에서 한·중 FTA 활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주 기자

학습조직화 사업 참여 중기 모집 전북 산업인력공단, 15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는 3~15일 까지 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새내 학습활동을 촉진해 근로자 직무능력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2120만원 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도내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직업능력개발팀(문의 210-9212)으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전복신보, 대출금리 3%대 하나은행 협약보증 30억 지원

전복신보보증재단(이하 전복신보)과 KEB하나은행은 2일 전라북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하나은행 협약보증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복신보는 하나은행이 2억원을 출연해 마련한 30억원의 자금을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며, 하나은행을 통해 연 3% 대의 이자로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지원된다.

자금 신청은 전복신보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복신보보증재단(063-230-3333) 및 도내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새민금사업단, 주요추진계획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민금사업단은 3일 신시33센터에서 유한식 상임감사에게 2016년 새민금 주요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박종대 단장은 업무보고에서 조속한 내부개발 추진계획, 경관개선을 위한 농생명용지 개발 명품 새민금 조성, 청렴문화 조성 등을 보고하고 상시 청렴문화 조성으로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글로벌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실시된 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 사업단 직원들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잘못된 관행과 부패 척결, 청렴한 생활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윤리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고 깨끗한 공사, 부패 Zero 조 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한식 감사는 특별교육을 통해 "부패 유발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비위 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계=곽태기 기자

생활물가 상승률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2월 0.9%로 2014년 7월(1.4%) 이후 가장 높아... 배추 65.5% ↑ · 양파 118.6% ↑

쇠고기, 양파, 배추 등 주요 농축수산물과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2월 생활물가지수가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 상승률은 0.9%로 지난 2014년 7월(1.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가운데 지출 비중이 높은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통계지표다.

지난해 생활물가 상승률은 저물가 기조에 따라 1월부터 9월까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0월(+0.1%)부터 플러스로 전환해 1%에 근접한 수준에 다가갔다.

2월 생활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주요 요인은 농축수산물(+5.0%) 가격 상승이다.

배추(+65.5%), 무(+43.7%), 파(+83.8%), 양파(+118.6%), 마늘(+48.9%), 쇠고기(국산·+16.3%), 갈

치(+11.9%), 계(+19.5%) 등의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신선식품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9.7%나 상승했다. 신선식품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농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주(의식·+11.4%), 학교급식비(+10.1%), 구내식당식비(+4.6%), 삼겹살(의식·+3.1%), 자장면(+3.5%) 외식 관련 지표들도 덩달아 올랐다.

또 전철료(+15.2%), 시내버스료(+9.6%), 상수도료(+3.1%), 하수도료(+22.8%)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오른 것도 생활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세 가격 상승도 가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2월 전세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4%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전월세 가격을 포함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2%를 기록해 전월(0.6%)

보다 0.6%포인트나 올랐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상승률 역시 지난 2014년 7월(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하며 1%대를 회복했다.

전월(1월) 대비 소비자물가는 0.5%나 올라 2015년 1월(+0.5%) 이후 1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정책과장은 "2월 신선식품 가격의 경우 날씨적인 영향과 설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받았다"며 "전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올라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다만 신선식품이 전체 가중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4% 정도 밖에 안 돼 신선식품이 사실상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고 설명했다. /이성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